

고1국어
지학사

3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신형·수능형·서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신형 기출 문제

최다 빈출유형 1

본문 작품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미 및 표현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내적 감상에 근거하여 내용과 표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1. 이 작품의 각 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하나도'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기다림의 절실함이라는 시적 화자의 감정을 좀 더 절제하여 드러내는 효과를 얻는다.
- ② ㉡는 '기다리는 이가 들어올 문이 닫힌다'와 '화자의 마음의 문이 닫힌다'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는 마침내 기다림의 종결을 선언하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④ ㉣는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에 부딪힌 '나'와 '너'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화되고 있다.
- ⑤ ㉤의 '너에게 가고 있는 기다림'은 멈춤과 이동의 이미지가 공존하는 모순적인 표현으로 만남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2.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청자에게 말하는 듯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는 청자인 '너'를 향한 '나'의 절실한 '기다림'을 섬세하고 서정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다. 이 시에서의 화자, 즉 기다림의 주체는 '다리는 대상의 부재'라는 현실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청자에게 접근하려는 '의지적인 행위'를 통해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시의 화자는 보편적인 기다림의 형태인 '수동적 행위'에서 벗어나 '나'와 '너'의 거리를 직접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미래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에서는 청각적 심상과 의성어를 통해 '나'의 절실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군.
- ② ㉡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화자는 현실적 갈등을 확인하고 실망하겠군.
- ③ ㉢에서 화자는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를 통해 현실적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군.
- ④ ㉣에서 청자인 '너' 또한 화자와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드러나는군.
- ⑤ ㉤에서 화자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관을 보여주는군.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의 처한 상황과 기다림의 대상이 드러나 있다.
- ② ㉡ : 설의적인 표현으로 기다림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소망-확신-아쉬움의 순서로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④ ㉣ : 시상의 전환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화자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다.
- ⑤ ㉤ : 기다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만남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최다 빈출유형 2

본문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관련하여 어조 및 시상 전개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표현을 학습해야 합니다.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
 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4.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너'와 '나'의 거리를 시·공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③ 색채의 선명한 대조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④ 구체적 청자를 설정해 말을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⑤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기대가 좌절되었을 때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
 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백적이고 고백적이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어조로 표현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와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 간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형태상 자유시이나 동일한 시구의 반복으로 내재적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누구나 한 번쯤 경험했을 것 같은 평범한 소재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수미상관과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6.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의 어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어조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나 독자에게 취하는 말투로 시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와 태도 및 주제를 파악하는 열쇠가 된다. 어조의 유형은 청자의 유무, 화자의 정서, 청자나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에 따라 나누어지며 시에서 종결형이나 문체, 반복되는 음운 등을 통해 드러난다.

- ① 대화 상대가 없는 상황에서 쓰인 경어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갈망을 추측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어조를 반복하여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 채 리듬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조금씩 좁혀지는 대상과의 친밀도가 짧은 호흡의 기대에 찬 어조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 ④ 화자의 소망을 이루려는 적극적 태도를 의지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 ⑤ 현재 진행의 종결형은 현재와는 달랐던 과거의 태도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7. <보기>는 위 작품을 감상한 학생의 반응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시는 ㉠ 임을 간절히 기다려 온 지고지순한 사랑이 느껴져. 너무나 간절함이 앞서다 보니 '너' 일 것이라는 ㉡ 강한 확실함에서 실망의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꾸준하게 '너'를 잊지 않고 있는 데서 요즈음의 인스턴트 사랑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아. 기다림의 자세도 처음엔 매우 ㉢ 수동적이었다가 '너'에게로 다가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 또 '너'라는 대상의 의미는 '사랑하는 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시인이 이 시를 쓴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내재적 관점의 '너'는 단순한 기다림과 그리움의 연속만은 아닌 것 같아. 겉으로는 시대적 아픔을 감추고 있지만 「타는 목마름으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에서도 시인은 ㉣ 이 땅의 진정한 민주와 평화를 애타는 심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어. ㉤ 인간적 사랑은 현실적으로 불안과 절망과 초조함으로 포기할 수 있어도 시대가 요청하는 이념은 반드시 도래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일은 기다림이 있어야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

숨죽여 흐느끼며 / 네 이름으로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 「타는 목마름으로」 중 4연

필수유형

서정 갈래의 필수적인 유형인 적절한 감상, 정서, 갈래상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리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 위 작품을 읽고 활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좋아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연애편지에 이 시를 담고 싶어.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의 애뜻한 마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
- ② 나는 올해 수시 합격을 기다리는 사촌 형에게 이 시를 선물하고 싶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형의 마음도 '가슴 애리는 일'처럼 간절할 것 같아.
- ③ 나는 기다리는 일을 참지 못하는 내 동생에게 이 시를 권하고 싶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참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동생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 ④ 나는 요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 시를 들려주고 싶어.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더욱 노력하라고 말해주고 싶어.
- ⑤ 나는 다른 학교로 진학한 후 서로 연락을 못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 시를 보여주고 싶어.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고 느끼는 것처럼,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을 그 친구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9. 윗글과 같은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등이 전개되고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②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체험을 포함한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통해 구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
- ④ 주된 구성 요소로 주제, 운율, 문체가 있다.
- ⑤ 사용된 언어는 외연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능형 기출 문제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 내 가슴에 쿵쿵거리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
 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 사랑하는 이어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1. 윗글의 핵심 정서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것은?
 ① 펄펄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다정한데 / 외로울사 이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 「황조가」
 ② 선화 공주님은 / 남 몰래 얼어 두고 / 맛동 바올 / 밤에 몰 안고 가다
 - 「서동요」
 ③ 가을 바람에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건만 / 세상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네 / 창 밖엔 깊은 밤비 내리는데 / 등불 앞에선 만리 밖으로 마음 향하네
 - 「추야우중」

- ④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 「청산별곡」
 ⑤ 마음이 어린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 만중운산에 어느 님 오리마는 / 지는 앞 부는 바람에 행여 권가 하노라.
 - 「마음이 어린 후니~」

2.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뻘,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살리고 있다.
 -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특정 어미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윗글은 <보기>와 달리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 ④ 윗글과 달리 <보기>는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윗글과 달리 <보기>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3. 윗글에서 문제 2번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표현이 사용된 구절로 적절한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및 해설

내신형 기출 문제

1. <답> ⑤

㉠에서 '기다리는' 것은 멈춤의 이미지를, '가고 있'는 것은 이동의 이미지를 표현하므로 모순적 표현이 성립된다.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 능동적 기다림의 의미를 형성하여 만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① '하나도'라는 표현은 작은 것 하나에도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정을 절제하여 드러내는 효과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기다리는 이가 들어올 문이 닫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만,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화자의 마음의 문이 닫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는 화자의 일시적 실망감을 드러내는 시행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에서는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에서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보아 기다림의 종결을 선언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의 '아주 먼 데서'는 물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것이 맞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여전히 만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화자의 태도로 보았을 때 이것을 한계에 부딪힌 '나'와 '너'로 인한 안타까움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답> ④

㉠은 '너'가 오고 있는 것에 대한 화자의 추측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인지 작품의 내용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너'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쿵쿵'은 가슴이 뛰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서 청각적 심상을 사용한 표현에 해당한다.

② ㉡에 앞서 '너일 것이었다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너'이길 바라는 강한 기대를 드러낸다. 그리고 화자의 현실적 갈등은 '너'의 부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이 닫'히는 순간 현실적 갈등

등을 확인한 화자가 실망했을 것이라는 해석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 화자의 태도는 수동적인 것에서 적극적 것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의지적 태도는 '너'를 만나는 것을 통해 화자의 현실적 갈등인 '너'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기다리는' 것과 '가고 있'는 것을 동시에 행한다는 표현을 통해 역설적 표현이 성립되고, '너'와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긍정적 미래관을 확인할 수 있다.

3. <답> ③

㉠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는 확신-소망-아쉬움이다. '너였다가'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확신을, '너일 것이었다가'는 가정적 어조를 통해 소망을, '다시 문이 닫힌다'를 통해 실망감과 아쉬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① 화자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과 기다림의 대상인 '너'가 드러나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인 '~있을까'를 사용하여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절실함과 간절함을 짐작할 수 있다.

④ '너'를 기다리기만 하던 화자가 '너'에게 '간다'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의 전환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⑤ '기다리는 동안'에도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극적 표현에 해당하며 기다리는 것과 '너'에게 가고 있는 것은 모두 '너'와의 만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통해 '너'와의 만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 <답> ①

'아주 먼 데'와 '아주 오랜 세월'을 통해 '너'와 '나'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둘 이상의 색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선명한 색채감을 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구체적 청자로 '너'를 설정하였으나, 말을 주고받는 형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다가오는 발자국',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

다'는 표현을 의인법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화자의 좌절과 실망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정서를 드러낸다.

5. <답> 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에서 역설적 표현이 드러나는 것은 맞지만, 시의 처음과 끝이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수미상관은 사용되지 않았다.

① 위 작품에서는 작품 속에서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혼잣말하는 듯한 억양으로 진술하는 것을 이르는 말에 해당하는 독백적 어조,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고백적 어조, '너'와의 만남에 대한 의지를 담은 어조가 사용되었다.

② 위 작품에 사용된 '쿵쿵'은 청각적 심상을 활용한 시어이며, '발자국'의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가슴'이 내는 소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중의성을 지닌다.

③ '너였다가', '아주 먼 데서', '가고 있다'와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누군가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평범한 경험을 소재로 하여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6. <답> ④

화자의 소망은 '너'와의 만남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와 같은 구절에서 의지적 어조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윗글에서 '하십시오체'에 해당하는 경어체는 확인할 수 없다.

② 윗글의 대상은 '너'이다. 윗글의 화자는 '너'에게 다가가고 있으므로 대상과의 객관적 거리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짧은 호흡'은 쉼표와 마침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실현한다. 이는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⑤ 현재 진행의 종결형은 '~고 있다'를 통해 드러나지만, 이것이 과거에 대한 반성적 의미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7. <답> ⑤

위 시에서 인간적 사랑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의 구절은 확인할 수 없다.

① '너'에 대한 흔들림 없는 기다림을 통해 지고

지순한 사랑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너였다가 /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 문이 닫힌다'를 통해 확신과 실망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를 통해 수동적 태도가 적극적 태도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인 '너'는 '민주주의, 자유, 평화'로 볼 수도 있다.

8. <답> ③

위 시를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깨닫게 하려는 것은 적절하지만,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와 같이 화자가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시행을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참고 기다리는 자세'는 이 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너'가 오기 전에 미리 가서 기다리는 행위를 통해 애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한 활용으로 볼 수 있다.

②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슴 애리는 일'과 관련짓는 것은 적절한 활용으로 볼 수 있다.

④ 진로와 관련하여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적절한 활용으로 볼 수 있다.

⑤ 친구의 연락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활용으로 볼 수 있다.

9. <답> ③

윗글은 현대시로 서정 갈래에 속한다. 서정 갈래는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심상을 통해 구체적 이미지 형성을 한다.

① 서사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② 교술 갈래에 대한 설명이다.

④ 현대시 구성의 3요소는 주제, 운율, 심상이다.

⑤ 외연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로 '사전적, 지시적 의미'와 유사한 의미이다. 그러나 서정 갈래는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아니라 시어에 담겨 있는 의미에 해당하는 '내포적, 함축적,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

수능형 기출 문제

1. <답> ⑤

윗글의 핵심 정서는 '상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다. ⑤의 화자는 깊은 산속에 있으면서도 '그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므로 윗글의 핵심 정서와 가장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① 외로움의 정서를 느낄 수 있다.
- ② 선화 공주의 은밀한 사랑과 그에 대한 은근한 풍자를 느낄 수 있다.
- ③ 학문과 관련한 화자의 고뇌를 느낄 수 있다.
- ④ 청산에 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느낄 수 있다.

2. <답> ②

윗글에서는 '-니다'가, <보기>에서는 '-테요'가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① 윗글에서는 '쿵쿵', <보기>에서는 '뚝뚝'이 사용되었다.
- ③ 윗글의 화자는 '너'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지만, <보기>의 화자는 모란이 지면 울기만 한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보기>에서 활용된 '-테요'는 부드러운 어감을 통해 섬세한 정서 표현에 기여하고 있다.
- ⑤ 윗글에서는 과장된 표현을 확인할 수 없지만 <보기>에서는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라는 표현에서 과장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란이 다시 피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답> 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하는 역설법이 활용되었다. ㉠에서도 '기다림'과 '감'을 동시에 행한다는 표현을 통해 역설법이 활용되고 있다.

- ① 의성어를 통해 청각적 심상이 활용되었다.
- ② 설의법이 활용되었다.
- ③ 반복법이 활용되었다.
- ④ 영탄법이 활용되었다.

4. <답> ③

윗글에서 ㉠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장면이다. <보기>의 ㉡에서도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화자의 행동이 드러난다.

- ① ㉠에서는 임과의 이별이 극대화되어 드러난다.
- ② ㉡에서는 눈과 귀가 먼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임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⑤ ㉡에서는 임과의 재회를 믿으며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5. <답> ④

㉠에서 사용된 표현은 역설법이다. ④에서 화자는 '당신'을 잊지 못하였으나 '잊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말하여 원래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법은 반어법이다.

- ① '외로운'과 '황홀한'이 모순을 일으키며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② '결별'과 '축복'이 모순을 일으키며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③ '소리 없는'과 '아우성'이 모순을 일으키며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⑤ '아름다운'과 '상처'가 모순을 일으키며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6. <답> ④

'너'는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으로, 화자가 재회를 소망하는 존재이다. <보기>의 '꿈길'도 화자를 '설레이'게 하는 것으로서 화자의 소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세월'은 '불타'게 하는 것으로서 흑독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봄'은 원래 꽃이 피는 계절이지만, <보기>의 화자는 '꽃피진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정적 현실 아래, '꽃'이 의미하는 일시적인 편안함에 젖어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봄'은 화자가 소망을 잊고 안일한 삶을 살도록 유혹하는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거미집'은 '낯은' 것이자 현재 화자를 휘두르